제4강 기계, 배치, 디아그람 Ⅱ

(1교시)

인용된 구절 – "이 선들로 하여금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게, 또 느려지기도 하고 빨라지기도 하게, 때로는 비약하게 만드는 여러 갈래의 속도들. 이 모든 것, 선들과 측정 가능한 속도들이 하나의 배치를 형성한다. 책은 하나의 배치, [특정한 주체에] 귀속시킬 수 없는 무엇이다" – 에서 알 수 있듯이, '배치' 개념 및 '다양체' 개념(과 '추상기계' 개념)은 위의 개념들(분절화, 절편성의 선들과 탈주의 선들, 층들과 탈층화 운동, 영토성들과 탈영토화 운동)을 모두 보듬는 개념이고 따라서 보다 크고 중요한 개념이다.(달리 말해 배치와 다양체는 이런 개념들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된다) 배치(와 다양체)가 "선들 – 분절선들과 절편선들,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일탈해 가는 탈주선들 – 과 측정 가능한 속도들"로 되어 있다고 한 것은 이 때문이다.

책은 하나의 배치, [특정한 주체에] 귀속시킬 수 없는 무엇이다. 그것은 하나의 다양체이다 – 그러나 사람들은 [특정한 주체에] 귀속되기를 그친, 즉 실사(實詞)의 지위를 얻은 다자(多者=le multiple)의 개념이 함축하는 바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배치는 하나의 다양체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특정한 주체에] 귀속되기를 그친, 즉 실사(實詞)의 지위를 얻은 다자(多者)의 개념이 함축하는 바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 은 배치 개념의 핵심을 담고 있다. 배치라는 개념이 비교적 경험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되는 개념이라면, 다양체 개념은 길고 복잡한 의미맥락을 가진 난해한 개념이다. 여기에서 "길다"고 한 것은 이 개념이 가우스-리만-베르그송-구조주의 등을 거치면서 제련(製鍊)된 개념임을 뜻하며, "복잡하다"고 한 것은 그것이 자연철학적-윤리학/정치학적-미학적…인 여러 맥락을 동시에 압축하고 있는 개념임을 뜻한다. 일단 현재의 맥락에서만 잠정적으로 이해하도록 하자.

여럿은 주로 어떤 주체/주어에 귀속된다. "be attributed to"라는 표현은 최소한 세 가지를 의미한다. 1) 서술. 언어적 측면에서 술어는 주어에 서술된다.(attribute=predicate) 2) 귀속. "맛있다"가 '자장면'에 붙을 때(서술될 때), "맛있다"라는 성질은 '자장면'이라는 실체에 귀속된다(아리스토텔레스가 표현했듯이 "부대한다"). 3) 표현. 귀속된/서술된 것은 귀속/서술의 대상을 표현한다. "맛있다"는 '자장면'을 표현한다. 여럿은 이런 식의 용법으로, 즉 실체(/주체)/주어에 귀속되어 이해될 때 **수적** 복수성, **외적** 복수성, **현실적** 복수성의 역할을 맡는다. "그 날 온 사람들은 열명이다." 열명이라는 복수성은 사람들이라는 실체/주체/주어에 귀속된 양적인 여럿이자, (공간에 펼쳐져 있다는 점에서) 외적이고 현실적인 복수성이다. 이렇게 여럿=다자는 귀속됨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해된다.

"실사의 지위를 얻은 여럿=다자", 즉 일자의 쌍으로서의 다자(일자의 나눔을 통해 형성되고, 다시 합해짐으로써 일자에로 歸一하는 그런 다자)가 아니라 순수 다자=여럿으로서의 여럿, 그리고 "~은 여럿이다"에서처럼 무엇인가에 귀속되는 여럿이 아니라 "여럿은 ~이다/한

www.artnstudy.com

다"에서처럼 "실사의 지위를 얻은" 여럿은 과연 어떤 것인가? 실사의 지위를 얻은 것은 '무엇', 어떤 "것", 어떤 실체, 주체, 주어이다. 그렇다면 실사의 지위를 얻은 여럿은 어떤 집합체를 뜻하는가? 그러나 하나의 집합은, 그것의 요소들이 아무리 많다 해도 "하나의" 집합이며 여럿이 아니라 통일된 하나이다. 여럿이 완전히 봉합될 때, 하나의 통일성, 동일성을 가진 무엇일 때 그것은 여럿이 아니다. 여럿은 어떤 형태로든 불연속, 열림, (그리고 질적 측면들을 감안할 때) 이질성을 함축한다. 그렇다면 들뢰즈와 가타리가 "실사의 지위를 얻은 여럿"이라 한 것은 어떤 하나(개체이든 집합체이든)가 아닌 진정한 여럿이면서도 또한 동시에 주어로서, 어떤 '실체' – 기존의 실체 개념과는 판이한 어떤 실체 – 로서, '무엇'으로서 존재하는 어떤 것이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실사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어떤 것, 그러나 전통적인 실체 개념으로 포착되기 힘든 어떤 것, 주어의 역할을 하면서도 어디까지나 여럿인 무엇, 그것은 무엇일까? 배치와 다양체가 바로 그것이다. 배치와 다양체의 이 성격을 간파해낼 때 우리는 비로소 『천의 고원』의 문을 열게 된다.

* 예술가, 예술작품, 관객들은 기계들이다. 또 예술의 기법, '사조', 구성방식, 전시의 관례… 등은 코드들이다. 그렇다면 '예술'은 무엇인가? 예술가, 예술작품, 관객들, 기법… 등이 아니라 '예술'이라는 이 말 자체는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가? '예술'은 이 모든 것의 집합인가? 그러나 보다 정확히 말해 '예술'이란 바로 하나의 배치이다. 예술가, 예술작품, …이 아니라 '예술'이라는 개념 자체의 존재론적 위상, 그것은 바로 배치인 것이다.

www.artnstudy.com